

# 觀光釜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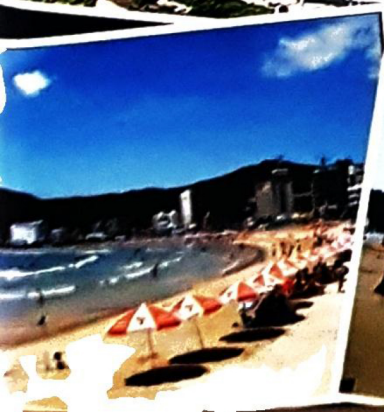
Busan Tourism News

Vol. 18  
2013. July

## 부산해수욕장

부산해수욕장: 지난해 피서 관광객 3600만 명 찾아 2조 7천억원 경제효과 창출  
B디는 부산 해수욕장이 그동안 안전·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축제와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피서객·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  
가 커졌다고 분석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해수욕장 경제적 가치 극대화 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밝혀)





# 내 생애 최고의 여행!

##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9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8146-6403 인천 032432-4600 광주 05222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3242-0099  
충북 043229-5163 충남 041939-5495 전북 063287-9292 전남 06129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322-1345-6 제주 064742-8991 KATA 02752-8692

Dynamic  
BUSAN

BITF 2013



since 1995  
제16회

# 부산 국제관광전

The 16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2013. 9. 6 (금) ▶ 9. 9 (월) 장소 BEXCO

Welcome to BITF 2013 ★

Travel

Boarding Pass  
합승권

BITF 2013

세계 30여개국의 다채로운 **여행정보/민속공연/경품**이 있는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놓치지마세요!

- ▶ BEXCO에서 만나는 1일 세계여행! - 국내외 관광홍보관
- ▶ 골라먹는 재미와 세계의 다양한 맛을 한 자리에! - 세계음식페스티벌
- ▶ 국내외 여행상품 및 여행용품 특별 현장 할인 판매 - 여행상품 및 여행용품 특별할인관
- ▶ 생생한 부산관광의 현장을 한눈에 - 부산관광 UCC전국공모전 및 부산관광사진전
- ▶ 매일매일 찾아오는 즐거운 세계민속공연 및 놀라운 행운경품 추첨

문의: (주)코트파 Tel. 02)757-6161

DATE 2013. 9. 6 (금) ▶ 9. 9 (월)

TIME 10:00-18:00

VALUE

BEXCO

HOST

부산광역시

ORGANIZE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SPONSOR

한국관광공사

OS

2 03060909

NO.

2 21 YG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중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3년 7월 20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등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tl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tmoon.kr



부산의 해수욕장

- 05 개통 10주년 맞은 광안대교, 교통·문화·관광중심으로
- 06 부산 해수욕장 한 해 2조7천억 경제효과 창출
- 08 북항대교, 상판 거차완료, 52km 명품해안 순환도로 완성 눈앞
- 09 내년 4월 개통되는'북항대교(가칭)' 이름짓기
- 10 크루즈여행, 관광활성화 동력되어야
- 11 부산 찾은 크루즈선, 1박 2일 일정 체류 늘어난다
- 12 크루즈선 선상 카지노 도입 움직임
- 13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주년, 관람객 150만 명 넘어
- 14 부산시티투어, 올해 승객 10만 돌파
- 15 부산 벡스코 "2020년까지 가동률 60% 목표"
- 16 무한 발전 중인 기장 동부산 관광단지 관광·휴양·쇼핑 등 사계절 휴양도시로
- 17 부산 해운대·수영구 국내최대규모 마리나 시설
- 18 광안리 해수욕장에 전국 최초 '무인 U-관광안내소' 운영
- 19 영화·영상 공공기관 9월까지 부산이전 속도
- 20 여름 여행은 관광공사 여행정보 '대한민국 구석구석 2.0 스마트폰 앱'으로
- 22 부산시 중국 관광설명회
- 24 제5회 부산관광UCC 전국공모전
- 25 엔저 반한反韓 감정으로 급감한 일본관광객 잡기 총력전
- 26 부산 오륙도 밤바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
- 27 활활한 부산의 여름밤
- 28 강동병원 부산시민공원에 124그루 나무 헌수(기부)
- 29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 30 입국장 면세점, 찬성 VS 반대 선택은?
- 31 친구 후 빌려타고 휴가하려면 '운전당부 특별약관' 가입부터
- 32 해외여행 성수기...사건·사고 유형과 대처방안
- 34 외국인 방문객 증가세
- 35 (칼럼)새정부에 바라는 부산의 관광정책 - 정순복 부산시 관광협회 부회장
- 36 (칼럼)의료관광은 부산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 김산혁 강동병원장
- 38 문과부 업무계획으로 살펴본 2013관광정책
- 40 호텔가소신

## 개통 10주년 맞은 광안대교, 교통·문화·관광중심으로 진정한 한국의 명품대교로 세계가 인정(미CNN방송 한국의 명소 4위 선정)

부산시는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에 이르는 7개 해상교량을 세계적인 명품 교량으로 만드는 '브리지 오브 부산(Bridge of BUSAN), 세계 명품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

부산관광의 랜드마크 자리잡은 광안대교가 개통 10주년을 맞았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을 연결하는 7.42km 연장의 광안대교는 2003년 6월 1일 개통 당시부터 부산의 상징이며 축제의 중심으로 우뚝섰다.

광안대교는 개통 첫 해인 2003년 1천 227만여 명의 통행량을 시작으로 이듬해 처음으로 2천만 대를 넘어섰다. 7년 만인 지난 2011년에는 연간 통행량이 3천만 대를 돌파해 3천 155만 대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간 누적 통행량은 2억 6천여 만대. 지난해 말 기준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417억 원에 이르며,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137억 원을 빼면 순수익이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안대교 건설 당시 수영구 남천동-해운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자동차로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광안대교를 타면 5분 만에 오갈 수 있다.

항만물류도시라는 특성 탓에 그동안 부산 도심을 통과하던 수많은 컨테이너 차량들도 광안대교를 이용하면서 부산의 주요 정체지역 통행 속도는 점차 빨라졌다. 동서교통난도 차츰 완화된 상태.

연간 통행량이 꾸준히 늘면서 부산에서는 '광안대교가 눈에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광안대교 개통에 따른 효과를 누리

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힘입어 부산시는 현수교양쪽 언덕에 줄이나 식사상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여 매달아 놓은 다리인 광안대교의 별칭을 '다이아몬드 브리지'로 짓고, '부산세계불꽃축제'와 '부산바다하프마라톤' 등을 잇따라 열어 광안대교를 부산 관광의 명물로 자리매김시켰다.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간 처음 열린 불꽃축제에는 연간 130만 명이 찾았다.

광안대교는 또 인근 해운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광안리 해수욕장, 수영만, 응호만 일대의 스카이라인도 바꿔 놓으면서,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경치를 제공하고 있다. 편한 접근성에 불거리가 늘어난 덕분에 광안리해수욕장 이용객은 2002년 443만 명에서 지난해 1천50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개통 10주년을 맞은 광안대교가 앞으로 부산해안순환도로의 개통과 함께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해안순환도로는 광안대교를 시작으로 내년 4월에 개통되는 북항대교와 남항대교, 천마산터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거가대교를 잇는 총 52km의 도로를 일컫는다.

부산시는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에 이르는 7개 해상교량을 세계적인 명품 교량으로 만드는 '브리지 오브 부산(Bridge of BUSAN), 세계 명품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도심에 거처지 않고 부산에서 저지대까지 해안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비롯해 관광과 경제 등 후방연쇄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현 기자



# 부산 해수욕장 한 해 2조7천억 경제효과 창출

## 지난 해 피서 관광객 3,600여만 명 찾아

BDI는 부산 해수욕장이 그동안 안전·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축제와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피서객·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커졌다고 분석

부산 해수욕장이 한 해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을 찾은 3천600여만명 이상 피서·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최근 '부산 해수욕장 경제적 가치 극대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BDI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부산 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관광객은 총 3천618만명, 한 명이 평균 3만3천352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간 지출한 돈은 1조1천266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 200여개를 가동하는 것 이상의 경제효과라는 분석.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관광·서비스업 분야 취업유발 인원도 5만2천명에 달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관광객의 소비·지출과 취업유발 인원 등을 감안한 생산유발 효과는 2조6천996억7000만원이다.

부산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해수욕장이 지난달 1일 일제히 문을 열었다. 개장 첫 휴일인 지난 1~2일 이틀간 10만여명의 피서객이 몰려 여름바다를 즐겼다.

BDI는 부산 해수욕장이 그동안 안전·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축제와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피서객·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이 6월에 조기 개장하면서 피서객 수가 해수욕장별로 12~15% 가량 늘었고, 인근 상가의 영업이익도 업종별로 10~20%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BDI는 부산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브랜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사장

쓰레기 투기·바가지요금 등을 없앨 수 있는 관리시스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맡은 최도석 BDI 선임연구원은 "이번 부산 해수욕장 경제적 가치 연구는 피서·관광객 수와 지출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엄청난 경제효과를 감안할 때 해수욕장은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가꾸어나가야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강조했다.

### 해운대 해수욕장

매년 여름철이면 전국 최대 인파를 기록하는 곳으로 유명한 명소들 중 한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짜릿함이 넘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안류(역파도) 체험이 바로 그것. 파라다이스 호텔 주변 해역에서 열리는 이번 체험에는 수상구조원들이 배치되고 안전 장비를 갖추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해운대구청 측의 설명이다.

남녀노소 모두 해운대의 매력에 빠져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준비돼 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모래축제를 비롯해 살사댄스 페스티벌(15일)과 해운대 음악회(7월 6~7일)가 연이어 막을 올렸다.

세계 각국의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한곳에 모이는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가 개최된다.

해운대구청은 송정해수욕장에 오는 9월 10일까지 캠핑을 원하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영장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두달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캠퍼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광안리 해수욕장

###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은 멋진 새 자연과 도시를 한번에 만끽할 수 있는 도심속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은 광안리 해수욕장만의 매력이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영구청은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해수욕장 광장에서 '광대 연극제'를 열고 7~8편의 연극을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구청은 또 7월부터 두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실시한다.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연극과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오는 8월 17일과 18일에는 럭비 선수 160여 명이 참가하는 '비치 럭비대회'도 열려 광안리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 송도 해수욕장

올해 개장 100주년을 맞은 송도해수욕장도 색다른 이벤트가 많이 준비돼 있다.

시구청은 7월부터 매달 2번씩 송도해수욕장에서 '비치시네마'를 열 계획이다. 해수욕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영화를 즐기며 여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7월에 선보이는 높이 6m의 다이빙대에서 '아미추어 다이빙 대회'

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중·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신만의 끼를 발휘해 다양한 자세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린다. 평소 보기 힘든 요트, 비치발리볼, 카누, 트라이애슬론, 윈수영 등 여러가지 경기가 여름바다에서 펼쳐진다.

또 8월 1일 송도 개장 100주년 경축식을 시작으로, 현인가요제(8월 3~4일), 송도해안볼레볼 달빛경기(8월 17일), 비치레슬링대회(8월 18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다대포

여유로운 분위기에 취해본다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연인끼리 즐길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이만한 해수욕장도 없다.

다대포해수욕장은 꿈의 낙조 분수와 갯벌생태체험 학습장을 갖추고 있어 해수욕 이외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해수욕을 즐긴 뒤 야간에는 최대 물높이가 55m까지 올라가 아시안 최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꿈의 낙조분수 공연을 보며 분위기가 있는 밤을 보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생태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자녀들과 갯벌에서 채집, 계 등을 직접 잡아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호영 기자



해운대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꿈의 낙조분수)



송도 해수욕장

## 북항대교, 상판 거치완료, 52km 명품해안 순환도로 완성 눈앞 광안~북항~남항~율속도~신호~기덕~가기대교 등 모든 다리 인간 돼



### 부산 최고의 관광명소로 탄생

부산 앞바다를 가로 자르는 해안순환도로 구간이 7개 해안 교량의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이다. 이 순환도로는 전례 없는 장관을 자아내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30대 최첨단 건설설비로 건설 중인 북항대교(가칭)의 정면 거치기 거치완료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하루 3시간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대표 및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동행 관광차량행 및 북항대교구간 하부에서 북항대교 사전교체형 상판 거치했다.

### 해안순환도로망 완성

이런 사전교체형은 사장교의 미학적 채(Exposure)를 대안 5대안으로 선정, 설치한 후 30~50% 미나리관을 설치해 교량의 일부를 연결하는 공 정이다. 부산 영도구 철학동~남구 김연동 연결 교량인 북항대교의 주 건설교는 사장교 형식으로 부산 전항에서 녹산, 신호, 선암, 지림 거치 명사대교, 신항대교, 광안대교,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망(광안대교~영도) 구축을 위해 건설되고 있다. 총사업비 5984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북항대교는 지난 2007년 4월 착공에 대한 4월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최장 길잡이 사장교로 국내 최초의 인공섬식 충돌방지장벽 등 최첨단 기술이 녹여넣는 북항대교는 연장 3331m, 폭 18.6~21.7m의 4~6차로로 건설된다.

내년에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광안대교에서 가기대교까지 총연장 52km에 이르는 7개 해안순환도로가 완성된다.

부산 영도, 바다 위를 자르는 광안대교-북항대교-남항대교-율속

도대교-신호대교-기덕대교-가기대교 등 모든 다리가 인간에 총 길이 52km의 바다 위 오브러(Bridge of BUSAN)가 탄생하게 된다.

### 7개 교량 연결~관광명소 탄생

이들 해안 교량은 현수교(광안대교), 사장교(북항대교), 아치교(신호대교), 갈매기(가기대교), 정사교(기덕대교)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돼 아름다운 부산의 해안경관을 이루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이 단거리를 장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내년 해안순환도로가 완공 개통되면 순환도로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에 지역을 갖고 그 지역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부산의 대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 다리를 체계적인 교량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세계명품화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시민투어 등을 통해 부산의 다리를 알리고 내년부터는 이를 상품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리별로 특화된 시설도 갖추고 이걸 위한 관광용 관광용인 선과 시민투어미스코스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광안대교에 만석 집과, 북항대교에는 교량박물관, 남항대교에는 전망카페, 율속도대교에는 칠채관찰용된조산명대, 가기대교에는 폭포분수에 등을 받는다.는 구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안을 끼고 7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색 있는 교량을 갖고 있는 도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부산이 유일하다"면서 "아름다운 해안 교량들을 명품화, 관광지위해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기자

## 내년 4월 개통되는 '북항대교(가칭)' 이름짓기

부산대교, 부산항대교, 갈매기대교, 부산중앙대교, 태평양대교 등 5개안 중 선정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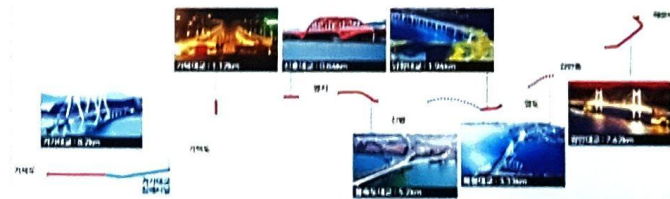
부산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품다리가 될 '북항대교(가칭)'의 명칭이 부산대교 등 5개 안으로 압축됐다.

부산시는 북항대교 명칭 선정과 관련 지방위원회, 심부위원회, 도시브랜드 위원회 거론을 거쳐 부산대교, 부산항대교, 부산중앙대교, 갈매기대교, 태평양대교 등 5개 안을 선정하고 지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밝혔다.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북항대교(가칭) 건설지는 지역의 우리나라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북항대교가 건설되는 지역의 역사성, 미래 100년 세계 속의 해양 도시를 염원하는 부산 시민의 열망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북항대교의 이름을 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적인 특성, 교량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과 부르기 쉬운이 도시 이미지의 연계할 수 있는 명칭을 제정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7개 교량 해안 순환 도로망

리의 리프 코너에 부악이 시작될 곳이다. 역사적 상징성과 유려성이 돋보이는 자리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북항대교를 포함해 광안대교와 가기대교(가칭-부산연결도로)를 연결하는 해안순환 7개 교량에 대한 통합 브랜드 마케팅인 '브리지 오브 부산(Bridge of BUSA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각 교량의 지역 특성을 스토리를 살리고 콘텐츠에 맞는 관광 코팅에 함께 교량마다 애칭을 부여하고 프래질, 펀치점프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북항대교 아름다운 경관 LED 조명 설치

길이 3.3km의 국내 최장 강함성 사장교인 북항대교는 5384억 원을 투입해 내년 4월 개통할 예정

북항대교가 경관조명 설계민경을 추진 광안대교처럼 아름다운 LED 조명을 설치한다. 부산시는 북항대교 경관조명 설계민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경관조명 설계를 민경하게 된 것은 예초 설계가 2006년 시행된 현재의 경관조명 효용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는 최근 유행하는 빌레타이오드(LED) 조명을 쓰지 않을 때였다. LED 조명은 백인등이나 형광등보다 밝기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특히 에너지 소비 9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90%에 되지 않는 기존 조명보다 훨씬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미라에서 비롯된 진리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편성된 4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금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10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검토된 경관조명 설계 민경은

다음 달 말까지 시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4월 북항대교 개통 전에 경관조명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화려한 현수교인 광안대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장교인 북항대교는 빛을 받아주는 면적이 부족해 광안대교처럼 빛을 쏘아 연출하는 화려한 조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설계에도 이런 한계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부산권에, 광안대교에 버금가는 경관조명을 갖춘 대교를 만들어낸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내년 4월이면 원도실 주민들도 아름다운 이단 경관 조명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길이 3.3km의 국내 최장 강함성 사장교인 북항대교는 5384억 원을 투입해 내년 4월 개통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가 한 단계 앞진 상황. 환경사업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 크루즈여행, 관광활성화 동력되어야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와 전통문화 체험, 레저와 스포츠 등 6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

한 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외래 관광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5년 6월 부산에서 캐나다인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한 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1978년에 100만 명, 200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1일, 드디어 1000만 명 째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세계적인 최대 크루즈시장인 북미의 잠재수요는 1억2천 800만 명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고부가가치 관광객인 크루즈를 통해 입국한 외래 관광객이다. 2007년 3만6000여 명에 불과하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27만 명으로 60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2017년까지 1천 6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와 전통문화 체험, 레저와 스포츠 등 6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적인 최대 크루즈시장인 북미의 잠재수요는 1억2천8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3%에 달하며 이들 중 크루즈 유형형자는 평균 4회의 크루즈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북미와 유럽 등의 주요 크루즈여행코스를 방문하고 새롭게 코스가 개발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아시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북미 크루즈 경험자의 4/5가 크루즈상품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55%는 크루즈상품을 재 구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영국의 경우 68%가 크루즈여행상품을 재 구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안 보이는 사람들과 은퇴한 노령인들의 전 유물로 인식되어오던 크루즈여행객이 대중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CJA)의 시장조사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의 51%가 49세 이하의 승객으로 가족단위의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시장인 중국의 크루즈여행객이 45.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부가가치 크루즈여행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특히 방한 중국인 크루즈관광객의 평균소비액이 938달러로 평균



크루즈관광객의 소비금액이 512달러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할 인프라와 수용태세가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언론이 지적하는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부산이 유일하며, 대부분은 페리터미널과 일반수출입 항구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크루즈여행객이 타고 내리는 모항과 준모항일 경우에 필요한 시설로 언론이 지적하는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과 거대시장 중국이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크루즈시장 전망은 밝다.

하드웨어인 터미널보다는 크루즈입항에 따른 전용선석 확보와 소프트웨어인 관광코스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코스의 개발에 있어서도 체험형식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Non-Verbal Performance 등의 공연관람을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관광상품을 크루즈여행상품으로 개발해 크루즈를 운영하는 월드리딩크루즈라인과, 로얄캐리비언, 스타크루즈 등 세계 3대 선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크루즈 여행 전공학과 확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과 거대시장 중국이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크루즈시장 전망은 밝다. 또한 세계유수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이 없다.

문제는 크루즈산업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의 마련이 병행될 때 고부가가치 크루즈관광산업은 무역수지에 호자노릇을 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효영 기자

## 부산 찾은 크루즈선, 1박 2일 일정 체류 늘어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돼

올해 들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항을 찾는 초대형 크루즈선이 크게 늘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바다 위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 '마리너(Mariner of the Seas)'호가 지난해 1박2일간 머물렀다.

올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항을 기항하는 크루즈선은 '슈퍼스타 제미니호'를 시작으로 이번 마리너호를 포함해 총 8차례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선박 가운데 이틀간 체류한 경우는 없었다.

마리너호는 세계 2위 크루즈선사인 로열캐리비안크루즈 소속 선박으로 지난해부터 부산에 입항하고 있는 보이저호와 제원이 같은 쌍둥이 크루즈선이다.

이번에 첫 입항한 마리너호는 올해 14차례에 걸쳐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4만2000명의 승객을 실고 온다. 총 톤수 13만8000t에 길이 311m, 너비 49m에 승객 3114명을 태울 수 있고 1180명의 승무원이 상주한다.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수영장과 3층 짜리 대극장(정원 1200명), 카지노, 암벽등반시설, 미니골프장, 나이

트클럽, 아이스스케이팅장, 서점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마리너호의 첫 입항을 환영하기 위해 입항환영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입항기념패와 꽃다발을 전달, 축하공연 및 선상투어, 크루즈 승객들을 위한 환상적인 불꽃쇼 등으로 진행해 관광객들이 부산 방문의 감동을 느끼게 하고 재방문을 적극 유도했다.

최근 대형 크루즈선의 부산 유치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크루즈 시장이 블루칩으로 부상하면서 크루즈 선사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말 국제크루즈 전용터미널이 완공되면 대형 크루즈 전용 선석 2척이 확보돼 크루즈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 프리미엄급 크루즈선사인 프린세스크루즈가 내년부터 부산을 공동모항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BPA 관계자는 "마리너호같이 1박 2일 체류할 경우 당일치기 일정 대비 지역경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북아 크루즈 활성화 위해 한·중·일 손 맞잡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에 건설 중인 크루즈 전용 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오는 2014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이 손을 맞잡았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해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부산항과 중국 상하이항, 일본 후쿠오카항 관계자들이 모여 동북아 지역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크루즈선 유치 증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BPA가 마련한 '부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의 후속 조치로,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크루즈항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크루즈와 관련된 이들 항만 협의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항만별 크루즈선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크루즈 공동 마케팅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논의됐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크루즈 수요와 한류 열풍으로 한·중·일 3국은 '골든 트라이앵글항로의 삼각지대'로 불리며, 세계 크루즈시장의 블루 오션으로 떠올랐다.

이에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 프린세스 크루즈 등 세계 주요 크루즈 선사들은 앞다퉈 동북아 노선에 다양한 크루즈선을 띄우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그 일환으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에 건설 중인 크루즈 전용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을 오는 2014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의 주요 크루즈항인 중국 상하이항과 일본 후쿠오카항 등과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효영 기자

## 크루즈선 선상 카지노 도입 움직임

지역 크루즈 관광 산업 발전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 대상으로 선상카지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면 지역의 크루즈관광 및 산업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선의 규모는 2만톤급 이상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세계 크루즈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적 크루즈선은 수익성 악화로 휴업하는 등 국내 크루즈산업은 사실상 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기항한 국제 크루즈선과 여객은 2009년 97척에 7만7000명에서 지난해 226척에 29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부산항을 모항으로 취항했던 국내 첫 크루즈선인 클럽하모니는 1년 만에 수익성 악화로 지난 2월 운항을 중단했다. 클럽하모니의 저조한 여객 실적에 선상 카지노가 없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

의관이다.

부산시도 해수부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적 크루즈선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 크루즈선은 대부분 카지노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적 크루즈선에 비해 여객 유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면 국적 크루즈선 사업이 활성화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항에는 국제 크루즈선이 126회(국적 57회·외국적 69회) 입항해 12만 명을 찾았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광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7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선상 카지노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광부는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정하는 것이냐는 국민적 감정 때문에 선상 카지노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영 기자

##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낙동강 유람선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주변 경관의 스토리텔링 작업도 진행 할 예정

부산시는 부산 을숙도대교에서 경남 창원군 길곡면까지 낙동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경남도, 양산시, 창원군, 김해시 관계자 10여명과 배를 타고 낙동강 현장 답사를 벌였다.

코스는 부산 을숙도에서 시작해 화명생태공원을 지나 물금, 원동까지 편도 33㎞였다.

부산시와 경남 지자체는 이번 답사에서 낙동강 유람선 운항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특히 낙동강 유람선 관광자원화 사업은 부산과 경남을 잇는 낙동강의 특성상 선착장 조성과 유람선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현재 을숙도와 화명생태공원에 선착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남도와 낙동강 인근 지자체도 각 지역마다 선착장을 짓고 유람선을 별도로 구입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남은 각 지자체가 조성한 선착장과 유람선을 활용해 사정에 맞는 장·단거리 유람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화원 등 낙동강 주변의 주요 지역의 재미있는 사연을 유람선 탑승시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해설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 화명생태공원에서 물금까지 왕복 1시간10분 코스에 시범적으로 유람선을 띄우고 확대여부를 고민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유람선 협력사업은 경남도와 부산시간의 현안조정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는 경남 지자체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유람선과 연계한 낙동강 주변 경관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주년, 관람객 150만 명 넘어

해양생물 50종 1천마리 해엄치는 터미널 수족관 인기

멋진 풍광과 다양한 볼거리를 담은 해양박물관이 개관 1년을 맞았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오는 7월 개관 1주년을 맞는다. 신비한 해양 생태계를 재미있게 보여주는 특화된 콘텐츠로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으로 우뚝 성장했다.

물방울을 형상화한 박물관의 아름다운 외관은 들어서서 순간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표 박물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15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개관 1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312만8천550명), 국립민속박물관(264만264명)에 이어 누적 관람객 수 3위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쌓고 있다. 영국 문화예술 전문매체 '아트 뉴스페이퍼(Art Newspaper)'가 조사한 세계 박물관 관람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해양박물관 관람객 수는 세계 박물관 중 29위를 차지했다.

개관 1주년 기념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국립해양박물관을 찾는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찾은 주말 나들이 장소로 그저 그만이기 때문. 물방울을 형상화한 박물관의 아름다운 외관은 들어서서 순간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박물관 안에는 해도침 '바다의 신비', 옛 조선통신사가 오가던 선박과 수족관 등 직접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 유물, 생물이 펼쳐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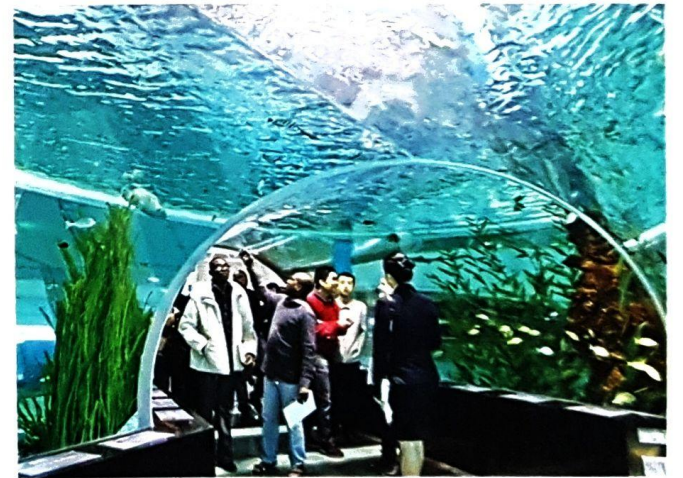
해양생물 50종 1천 마리가 해엄치고 있는 터미널 수족관은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다. 제브라상어, 까치상어, 곰치, 가오리 등이 해엄치고

는 수족관은 아이들이 몇 시간이고 떠나지 않고 빠져있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최근에는 바다거북 2마리와 해마 등이 수족관에 합류해 점점 볼거리를 더해가고 있다.

박물관 중앙에 크기를 반으로 줄여 복원한 대형 조선통신사선도 흥미롭다.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와 방법을 관찰하며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박물관의 많은 유물들을 둘러보다 지치면 옥상전망대에서 시원한 비눗바람과 함께 잠시 쉬어가도 좋다. 부산의 상징 오륙도와 동북아 물류허브 부산항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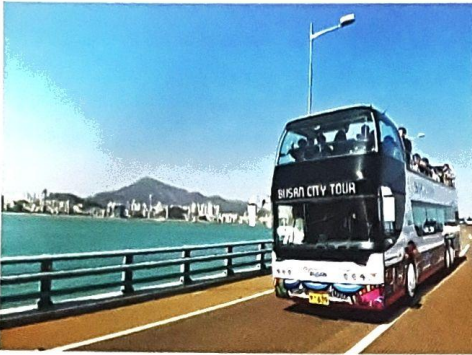
개관 1주년을 맞아 9월29일까지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도 열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특별전시다. 영화 '해운대'와 같은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을 눈앞에서 생생히 만나볼 수 있는 체험관부터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복극극, 북극여우 등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이효영 기자



## 부산시티투어, 올해 승객 10만 돌파

지난해 18만 5000명, 올해 20만명 돌파예상



부산시티투어 탑승객이 상반기 승객 수 10만 명을 돌파, 하반기까지 2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탑승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시티투어 버스를 타지 못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탑승객보다 많아 버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티투어 버스는 현재 40인승 버스 1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하루 최대 탑승객이 1천3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는 2천~3천여 명이 장시간 투어 버스를 기다리다 되돌아간다는 것이 시티투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티투어 관계자는 "시티투어의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어 버스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외국인과 외지인 등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장이 잦은 노후버스 2대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티투어는 2008년 처음 도입돼 탑승객 수 8만 6천여 명을 기록한 이래 2009년에는 8만 5천여 명으로 탑승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14만 4천여 명이 시티투어를 이용해 전년 대비 69.4%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래 2011년 15만 6천여 명, 지난해 18만 5천여 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 영화의 전당에서 세계로 떠나는 기차 여행을...

'기차여행'전은 작은 모형을 통해서 세계라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영화의 전당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전시회 '영화의 전당에서 떠나는 세계기차여행'전을 개막했다

'기차여행'전은 철도모형 디오라마를 중심으로 세계 유명 문화유적지, 영화 속에 나온 세계의 범선, 자동차 미니어처 모형을 한 곳에 모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형 체험전시다.

'영화의 전당에서 떠나는 세계기차여행'전에 선보이는 철도모형 디오라마. '기차여행'전은 3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제1관은 영화의 전당 비프힐 1층 다목적홀, 제2관은 더블론 4층 특별전시실, 제3관은 더블론 3층 특별전시실에 자리를 잡는다.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세계적인 해체주의 건축물인 영화의 전당의 건축미도 감상할 수 있다.

제1관에서는 철도모형 디오라마와 세계문화유적 미니어처를 만

날 수 있다. 철도모형 디오라마는 19세기 이동식 극장 장치. 최근에도 영화세트에 이용되고 있는 '디오라마(하나의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하여 장면을 연출) 방식'으로 유럽의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정교하게 구성해 놓았다.

'세계문화유적 모형'도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룬먼석굴의 바위가 떨어져 나간 흔적까지 실제와 똑같이 재현했다. 또 이집트의 대표적 유적 스피нк스, 피라미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 등 세계의 랜드마크를 모두 만날 수 있다.

'기차여행'전은 작은 모형을 통해서 세계라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모든 전시물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고, 전시물마다 상세한 설명이 더해져 있어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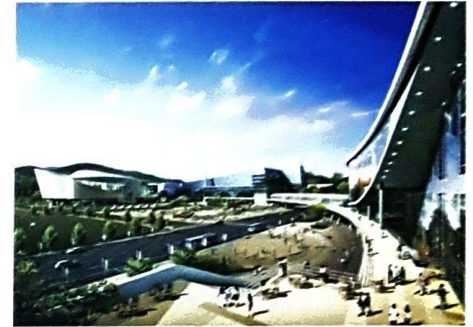
## 부산 벅스코 "2020년까지 가동률 60% 목표"

벅스코(BEXCO)가 아시아 최고의 전시컨벤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혁신에 나섰다.

벅스코는 현재 42%인 전시장 가동률을 매년 2~5% 늘려 2020년까지 가동률 60%로 확대하는 신경영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이 국내 전시컨벤션 산업 중심지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벅스코 측은 ▷전시컨벤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동률 확대를 통한 흑자경영 기조 정착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전시 선진국의 대표 전시장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유명 전시회의 한국, 아시아 버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또 대형 국제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유치 대행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 전시·회의기획업체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시컨벤션 산업의 뿌리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관광공사, 마이스포럼 등과 같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시 도시 마케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제2회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쳐

동북아 최고의 '마이스 페스티벌'이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벅스코 2층의 컨벤션홀(APEC홀), 개막식 직후 곧바로 열린 이번 행사의 핵심인 프로그램인 '부산 국제 마이스 포럼'에서는 부산의 국제 마이스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제시됐다.

이 날 페스티벌에서 '우수 마이스 도시로서의 싱가포르 전략과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 다이엘 추아(Daniel Chua) 싱가포르 마이스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는 인구 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능력과 국적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각 부처도 마이스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마이스 산업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항상 사회·정치적, 경제·기술적인 측면의 국제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흐름을 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키라 니나가와 일본관광공사 컨벤션유치 부장은 "일본 마이스 현황과 우수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차별화된 마이스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일본 아미가타현 카미노아미에서 열린 '컴퓨터 & 정보과학 국제회의'를 사례로 들었

다. 온천지역인 이곳은 지역 특성을 살려 회의장소를 다다미방이 설치된 온천여관에서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시민들도 온천자원인 훌륭한 국제회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돼 이후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이어 '부산 마이스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철원 경희대 관광대학장은 "창조형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인센티브 여행 시장 활성화, 마이스 유치기반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마이스 수요를 다각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융·복합형 상품을 내놔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마이스 벤처와 펀드 등 마이스 인큐베이터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 마이스 브랜드 구축 등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우영 부산관광컨벤션포럼 기획팀장은 "복합형 참가자들은 앞으로 부산 마이스 산업을 이끌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상담과 면접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 무한 변신 중인 기장 동부산 관광단지 관광·휴양·쇼핑 등 사계절 휴양도시로

2017년까지 도심형 레저테마파크 비치레포트 등 4개 존으로 나누어 개방



▲ 조성 중인 동부산 관광단지 전경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기장군 대변리 일대를 오는 2017년까지 두바이의 팜아일랜드, 싱가포르의 센토사리조트 버금가는 '꿈의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위락시설을 갖춘 부산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부산에서 마음껏 즐기며 쉬고, 쇼핑할 수 있는 도심형·복합형·정주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 이를 통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크게 늘리고, 관광산업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관광업계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완공하면 부산을 찾는 연간 관광객이 3천5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

시는 4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366만㎡ 규모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국립과학관, 골프장, 메디컬타운, 문화예술단지, 해변공원, 쇼핑몰 등 34개 시설을 세운다. 이 가운데 이미 13개 시설은 투자유치를 확정된 단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중이다.

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도심형 레저(Urban Leisure)·테마파크(Theme Park)·비치(Beach)·레포트(Leports) 등 4개 존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심형 레저존에는 문화예술단지·테마쇼핑몰·아쿠아월드 같은 19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 도시적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복합문화레저시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테마파크존에는 테마파크와 국립과학관이 들어선다. 영화·영상, 애니메이션, 음악, 키즈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치존에는 한옥마을, 전통호텔, 메디컬타운, 랜드마크호텔 등의 시설을 세워 부산의 해안절경을 감상하면서 휴식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레포트존에는 골프장과 휴양콘도미니엄 등 최고급 레포트시설이 골고루 들어선다.

### 국내 최대 명품 아울렛 등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가 문을 열면 많은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우선 국내 최대 규모 프리미엄 명품 아울렛이 들어선다. 롯데쇼핑은 지난 3월 동부산관광단지 내 상업시설 부지 9만9천251㎡에 명품 아울렛을 세우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아울렛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 아울렛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만2천㎡ 규모로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세계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면적(4만여㎡)의 2.5배 규모, 신세계도 아울렛을 세운다.

동부산관광단지에는 2만1천㎡ 규모로 국내 최대인 아쿠아리움도 들어선다. 해운대아쿠아리움(3천500여)의 6배로 여수엑스포 아쿠아리움(6천400여)의 3배가 넘는 크기다. 세계적 브랜드 호텔 '힐튼도' 바다위의 성'을 콘셉트로 들어선다. 이 호텔은 숙박, 스파, 건강, 의료,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최고급 휴양리조트. 2천100억원을 들여 동부산관광단지 내 연면적 9만168㎡,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선다. 호텔 객실 500실과 콘도미니엄 120실을 비롯해 갤러리, 야외극장, 키즈 아카데미, 콘퍼런스 홀 등 부대시설을 갖춘다. 국립부산과학관도 지난달 9일 첫 삽을 떴다. 2015년 7월 개관 예정. 핵심시설인 테마파크는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터 닦기 공사를 내년 초 끝내면 전기·수도 시설을 갖추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관광업계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완공하면 부산을 찾는 연간 관광객이 3천5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객 가운데 동부산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도 대단하다. 생산유발효과 7조원, 취업유발효과는 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는 더 대단하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관광의 아이콘으로 사랑 받으며 부산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데 랜드마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명품 관광도시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관광도시 부산의 꿈을 실현할 동부산관광단지의 미래는 밝다.

손해식 편집위원

## 부산 해운대·수영구 국내 최대 규모 마리나 시설

APEC 나루공원 수영강변 계류장도 9월부터 이용



승정 해양레저 컨트롤 하우스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연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운대구는 오는 25일 승정해수욕장에서 지상 4층, 전체 면적 2천 800여㎡인 '승정 해양레저 컨트롤 하우스' 개장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해양레저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실내 수영장, 스쿠버 다이빙 전용 풀, 다목적 홀, 정비 보관실, 클럽 하우스, 식당, 해양레저 열티슈, 전망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 30객실 규모의 이용자 숙소가 마련됐고 해상보도와 계류시설이 바다 쪽으로 90m가량 뻗어 있어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연중 즐길 수 있다. 민간 사업자인 ㈜한국

해양레저스포츠는 또 초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승정해수욕장과 연결된 죽도공원 앞에는 오는 9월 수상 오토바이, 바나나 보트, 윈드서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승정 해양레저기지'가 들어선다.

노보트, 서클 바이크 등 87지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해운대구 우동 APEC 나루공원의 '수영강변 계류장'도 오는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해운대구 동백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클럽 하우스와 보트 61척을 계류할 수 있는 '동백섬 해양레저기지'도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다.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을 해양 스포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2011년 4월 광안리해수욕장에 지상 1층, 전체 면적 571㎡ 규모의 해양레포트센터를 조성하고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오는 8~11월에는 백사장에서 비치 럭비대회를 열고 10월에는 달빛수영대회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초보자를 위한 해양 아카데미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수영구는 또 광안리해수욕장과 연결된 남천동 해변공원 앞 공유수면에 대규모 마리나 시설을 건립,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 동아대 박물관, 방문객 4년만에 2배

지난해 4만3700명 찾아

동아대학교 부인캠퍼스 동아대박물관이 부산지역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아대박물관은 지난해 방문객이 4만3701명으로 2009년 5월 구덕캠퍼스에서 부인캠퍼스로 이전한 뒤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동아대박물관 방문객은 부인캠퍼스로 이전, 개관한 2009년 2만1799명에서 2010년 2만6256명, 2011년에는 3만481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만3701명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당시인 2009년부터 방문객 수가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방문객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국보와 보물 등 다량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데다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동아대박물관 측은 분석했다. 우선 동아대박물관은 국보인 동결도와 개국원종공신복권을 비롯해 보물 11점, 부산시 유형문화재 20점 등 3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또 '생생하게 들려주는 생생 근대 이야기'와 '수요문화영상'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박물관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시민은 동아대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린 체험수기에서 "연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연등의 유래 등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 광안리 해수욕장에 전국 최초 '무인 U-관광안내소' 운영

모든 콘텐츠와 시설 안내는 4개 언어(국·영·일·중)로 제공

전국 최초로 광안리해수욕장에 '무인 U-관광안내소'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은 U-city 사업 선도 도시로서 2006년부터 꾸준히 U-관광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관광안내소도 부산 지역업체의 순수 기술과 현재 6천여 개의 디지털 관광 콘텐츠를 관리하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솔루션의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구축했다.

관광안내소의 명칭은 시설이 위치한 수영구에서 부산의 상징성과 IT 기술을 반영해 공모한 '끼룩끼룩 광안리 U-관광안내소'로 정했다. 장소는 기존의 수영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관광객이 손끝으로 터치해 즐기는 관광안내소에는 ▲부산의 관광지, 축제, 영화, 숙박, 맛집, 전자방명록 등 정보 제공 및 관광안내원과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U-관광안내도 ▲관광지를 배경으로 고화질 사진을 촬영하는 U-포토존 ▲별자리를 체험하는 U-전망대 ▲사진 촬영과 사진 효과를 통해 부산 여행 추억 만들기를 하는 U-모자이크 ▲홍보영상인 U-멀티비전 ▲관광지, 축제 사진을 감상하는 디지털 액자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특히 U-포토존에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은 이메일(e-mail)로 전송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관광홈페이지(tour.busan.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와 시설 안내는 4개 언어(국·영·일·중)로 제공된다.

부산 주요 관광안내소·1330(전국 관광동역안내)과 전화 연결을 통해 관광문의를 할 수 있다. 시는 여행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여행코스 콘텐츠 개발과 부산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 추가 등 지속적인 콘텐츠 구축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안내소 구축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 여행코스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산 관광 콘텐츠는 부산문화관광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mtour.busan.go.kr), 스마트폰 앱(부산투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부산 광안리해변로 7월 6일~8월말 '주말 차 없는 거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가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된다.

연양심거리-만남의 광장 780m 구간에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

벽 1시까지 차량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콘서트, 아트, 펀(Fun),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 등을 4가지 테마로 나눠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친다.

콘서트 구간에서는 피아노와 테너 앙상블 공연, 세계 민속공연, 오케스트라 연주, 밴드 페스티벌, 비보이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아트 구간에서는 등공예, 알공예, 미술, 미술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마련된다.

또 어쿠스틱이나 인디밴드 공연이 펼쳐지며 '버스킹' 구간과 마임, 샌드 애니메이션, 퓨전 미술, 인형극 등으로 채워지는 '펀' 구간을 선보인다.

김대현기자

## 영화·영상 공공기관 9월까지 부산이전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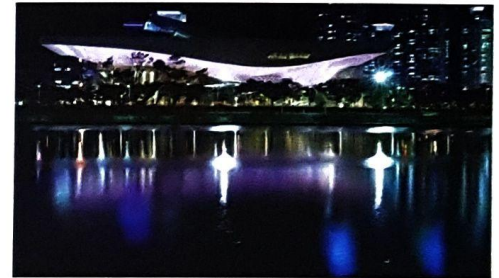
센텀시티 일대 국내 최대 영상·영화 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영화·영상 분야 공공기관의 부산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부산해운대 센텀혁신지구의 '영화·영상타운' 설립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이 '영화도시' 면모를 한층 다지며, 영화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달 경남정보대와 '영진위 임시사옥 사용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는 10월 부산이전을 앞두고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를 임시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영진위는 센텀시티에 짓고 있는 신사옥 완공 때까지 우선 경남정보대 센텀캠퍼스 13, 14층을 임시사옥으로 쓰기로 하고, '부산 혁신도시 이전 추진단'을 구성, 이사 준비에 들어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청사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부산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예산 9억5천만원을 확보, 부산영상산업센터에 입주할 준비에 들어간 것. 오는 9월까지 부산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부산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부산에서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게임을 관리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11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직 개편과 부산 사무실 개소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영진위, 영등위, 계등위 등이 입주할 곳이 영화의 전당,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동서대 일민택영화예술대학 등 영화·영상민·관·학 기관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센텀시티 일대가 국내 최대 영화·영상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故 신성희 '평면의 진동' 원화...흥이 넘치는 축제 의미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공식 포스터(사진)가 공개됐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고(故) 신성희 작가의 '평면의 진동'(2008년 작)을 원화로, 최순대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이 디자인한 작품이다.

'평면의 진동'은 신 씨의 독창적 고유 화법인 누아주(nuage·매드회화) 기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다. 캔버스에 색점과 색선으로 채색한 화면

을 만든 뒤 이를 찢고 접고 매듭짓는 것이 누아주 기법이다. 점과 선, 평면과 입체가 결합된 신 작가의 작품은 이번 공식 포스터에서 관객과 영화인이 씨줄과 날줄처럼 만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격과 종합예술인 영화의 특성을 드러냈다. 역대 영화제 중 가장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의 포스터로, 올해 영화제의 지향점인 '흥이 넘치는 축제'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 해운대 홈플러스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오픈

부산관광공사가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 1층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열고 전시·판매를 시작했다.

홈플러스 해운대점 관광기념품점(이하 관광기념품점)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선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품 편의를 제공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관광기념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

관광기념품점은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 1층에 76평 규모로 들어섰다. 전시·판매되는 기념품은 '2012년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및 '201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공모전' 당선작을 등 총 20여개 업체 100여 점 이상이다. 또 공모전 수상작 외에 롯데 이우 응원물품이나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 해변길 마그네틱 등 부산관광공사가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한 상품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 올여름 여행은 관광공사 여행정보 '대한민국 구석구석' 2.0 스마트폰 앱으로

여름 휴가지는 여름 여행에 특화된 앱이다. 계곡·폭포, 해수욕장·해안·섬, 워터파크의 3가지 카테고리별로 전국 700여 곳의 여름 휴가지를 지역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2.0은 국내 여행을 위한 필수 앱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3만여 건의 여행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유명 관광지에는 물론이고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관광공사 추천 관광지가 총정리돼 있다. 여행전문 기자와 블로거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한 기사들이 강점이다. 또 GPS 기능이 들어 있어 주변의 관광지는 물론 문화시설,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지도에 표시된다. 여행 중 이동 경로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국내여행총리제 앱도 유용하다. 축제 일정, 여행지 주변 맛집, 저렴한 숙박 시설 등 각종 알짜 여행정보 5만 6천 건이 수록돼 있다. 찬사 일색의 주례사식 평가에서 벗어나 지자체 인증이나 도서에 실린 횡수, TV에 소개된 횡수, 세계적으로 인정된 여행지, 사용자 평점 등 많은 인증정보를 종합해 신뢰할 만한 편이다.

여름 휴가지는 여름 여행에 특화된 앱이다. 계곡·폭포, 해수욕장·해안·섬, 워터파크의 3가지 카테고리별로 전국 700여 곳의 여름 휴가지를 지역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해변스케치와 파도아 놀이는 전국 38곳 주요 해수욕장의 기본정보와 주변 시설, 날씨, CCTV 영상 등을 제공하는 앱이다. 특히 CCTV를 통해 해당 해수욕장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어느 해수욕장의 물결이 좋은지, 인파가 물리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피할 수 있는 기차 여행도 색다른 모이다.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서비스하는 기차여행 앱을 이용하면 테마별, 일정별, 지역별 기차 시간표를 검색할 수 있고, 삼척 바다열차, 화천열차펜션, 자전거열차 등 테마 관광열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올레, 갈매길, 해파랑길 등 아름다운 해안가를 걷는 코스나 그렇게 환상적이지는 않더라도... 두발로 2.0은 국내 문화생태탐방로 39개 구간 및 해파랑길 코스를 안내하는 도보여행 가이드 앱이다. GPS와 증강현실 기능을 적용, 탐방로를 걷다가 현장 사진을 촬영하면 지도를 통해 코스와 주변정보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기암길 따라 도보여행은 자연과 생태가 숨 쉬는 전국의 강을 따라 걷는 길을 안내하는 앱이다. 역사가 흐르는 낙동강변의 퇴계오

솔길이나 우리 문화의 금지탑인 박경리의 '토지' 주무대를 둘러보는 삼진강 토지길 등 테마와 지역별 코스가 엄선돼 있다.

시원한 파도와 짝조름한 바다 냄새,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어우러진 등대 기행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등대여행 앱은 등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등대 드라마와 함께 가는 길, 주변 숙박 정보 등을 제공한다.

행선지를 정했다면 다음으로 큰 걱정거리인 숙박을 처리해야 한



다. 펠리시 숙박은 호텔, 펜션, 모텔 등 최소 25% 이상 할인(비수기 기준)되는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한다. 1주일 단위로 빈방과 할인가가 제시되며, 숙박시설 사진 등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역경매' 메뉴도 있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숙소를 구할 수 있다.

값싸고 맛있는 맛집을 찾다니는 것도 여행의 중요한 일과다. 전국맛집 TOP1000은 맛집 찾아가는 길, 영업시간, 음식 가격, 실제 체험기 등의 정보도 풍성하게 제공한다. 지자체 인증은 물론 맛전문 블로거 100명과 현지 주민의 설문평가를 종합해 선정해 신뢰도가 높다.

## 한국관광공사 추천 '7월에 가볼만한 곳'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선정

삼례양수장이 있는 비비정마을, 소양면 대승한지마을도 패키지로 소개



지난 6월 5일 개관한 삼례문화예술촌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7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가 전북지역 평야지대 양곡을 수탈하기 위해 지은 양곡창고를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 곳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관광지의 변신은 무죄, 재탄생 여행지'란 주제로 7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삼례 문화예술촌을 비롯해 전국 8개의 관광지를 소개했다.

관광공사는 삼례문화예술촌에 대해 "10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삼례 양곡 창고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예술이다"며 "완주군이 마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과 힘을 모아 지난 5월에 삼례문화예술촌 '삼삼예미마'를 열었는데, 각 공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작가들이 예술 주제를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예술가들이 공간의 변신을 꾀하되, 건물 안팎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근현대 예술이 한자리에서 빛날 수 있게 배려한 점을 비롯해 오래된 벽체와 함석지붕, 높은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물, 통풍이 잘되어 습기가 차지 않도록 내부 벽면에 'W' 모양으로 붙인 등기구등과 'H' 모양 사각 나무 기둥은 새롭게 만든 작품처럼 벽면을 장식한 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관광공사에 의하면 삼례 문화예술촌은 건물 내부의 옛 모습을 가

장 잘 볼 수 있는 공간은 비주얼 미디어 아트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VM아트갤러리'와 지역민의 문화 교육을 담당할 문화 카페 '오스'가 눈길을 끈다. VM아트갤러리에서는 W 모양 등근 나무 기둥을 작품의 재료로 활용한 현대적 영상들도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사)한국산업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이 전시된 '디자인박물관'은 삼례문화예술촌의 시 작점이기도 하다.

'책박물관'에서는 오는 9월 22일까지 박물관의 역사관 주제로 '완주 꿈꾸는 책마을전(展)'이 열린다. 영월에서 책박물관을 시작한 지난 1999년부터 삼례 문화예술촌으로 옮겨오기까지 과정을 전시로 구성했다. 책박물관이 소장한 옛 교과서와 교과서 삽화, 송광용 씨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40년간 써온 만화 일기 131권 등 흥미로운 전시물이 가득하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밖에도 등록문화재 221호로 지정된 완주 구 삼례양수장이 있는 비비정마을, 한지의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 부채를 만드는 장인의 솜씨도 관람할 수 있는 소양면 대승한지마을에도 삼례 문화예술촌과 함께 패키지 여행객을 좋은 장소라고 추천했다.

# 부산시, 중국 호북성·섬서성 관광 설명회 열려



부산시는 부산관광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중국 호북성·섬서성에서 부산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 김기환 국제협력과장, 이대섭 부산시 관광협회장, 김성환 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관련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호북성 어유국 부국장, 주무한 총영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호북성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만찬 간담회에서 “관광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다행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점 때문에 나름대로는 활발한

관광교류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내륙지방인 호북성에서 대형여행사와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 부산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부산관광상품 개발방안을 협의하며, 호북성과 상호협력 및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자 방문했다.”고 말하고 “부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한국 제1의 해양항만도시이자,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도시, 국제관광도시로 산·호북성간 상호교류 적극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호북성 무안시

13개 행정구역, 인구 820만명이다.

관광자원 - 천하제일 루각인 黄鹤楼(황학루), 기원사, 武漢長江(무한장강)대교

역사문화 - 중화민국 탄생지·중국내륙에서 최대 통상 항구로서 동방의 시카고로 불린다.

지역축제 - 무한 국제 서커스 예술제 : 2년마다 9-10월 개최, 국내외 서커스 경기와 공연.

무한관광축제 : 매년 10월 개최, 김제결혼식, 관광노선 및 제품 홍보

## ● 허남성 낙양시

6개 행정구역, 인구 694만명이다.

관광자원 - 세계무형문화재인 龍門石窟(용문석굴), 白雲山(백운산) 국가삼림공원, 白馬寺(백마사)

역사문화 - 洛陽 일대는 황하문명의 발상지 司馬光(사마광)은 낙양에서 역사대각자치통감(資治通鑑)을 썼음.

하(夏)나라와 상(商)나라 시기 낙양성은 줄곧 이 지역의 정치 중심지였음.

지역축제 - 낙양모란문화축제 : 1983년부터 매년 개최 되는데 낙양시민들의 정치·경제·문화 생활 등의 증대난 축제로 경제발전과 도시 홍보의 중요한 무대다.



## 진시황 병마용갱

산 같은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주변에 1개 사단에 버금갈 엄청난 규모의 병마용을 땅 속에 묻어 둔 병마용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난 1974년 봄,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 되었고 현재 발굴된 병마용갱은 모두 3개로 그 가운데 1호 갱이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수의 병마가 잘 정

리되어 있으며 능부가 관 우물자리도 1호갱 맨 앞 부분에 브즈뎅어 있다.

무장을 갖추고 각자의 임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는 병마는 완전히 깨진 조각을 발굴하여 이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맞추어 다시 만든 것이라 한다.

## ● 섬서성 서안시

9개 행정구역, 인구 782만명이다.

관광자원 - 드간새, 雲鶴(운학), 太白山 관광구, 오박중 하나인 華山(화산),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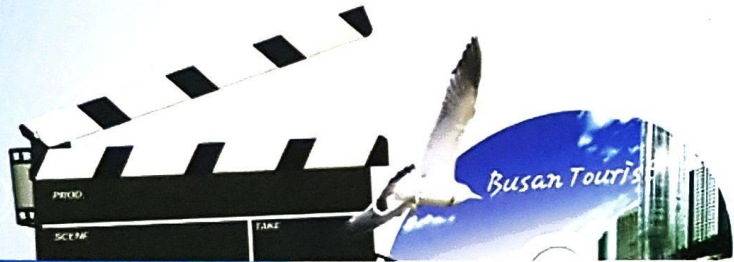
지역축제 - 장안국제서법대회 : 매년 3월 개최 서예작품전시, 세미나, 문구전시 등

시안병마용석류축제 : 매월 9월 중순 7일간 개최, 병마용의 고향, 중국 석류 생산지

시안옛문화예술축제 : 매년 9월 개최, 높은 나무 타기 등 공연

● 대당西市시는 시안시 연호구 노동남로 서쪽 예정이며 45억위안이 투자 됐다.西市는 1400년전 수나라 때의 대당성과 당나라 때의 장안성에서 유명했던 국제무역중심으로, 수나라 때 세워져 당나라 때에 와서 번성했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상업 무역 중심지다. 대당서시는 시안시 상징적 건축물로 역사문화적 분위기와 현대적 쇼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 중국·한국·일본 등 12개 대표적인 국가의 특색 건축물을 건설, 특색 상품과 파저 신크린드를 갖춘 한 복합이라고 한다.

#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기념 제5회 부산관광 UCC 전국공모전



**79.9%** 개성 100%, 재미 200% 사람들 시선을 확끈하게 사로잡는 부산 관광홍보대사가 되어보세요!  
부산의 소소하고 친숙한 볼거리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눈길을 끄는 골목골목, 색다른 정취와 분위기를 뽐내는 작은 동네, 부산의 매력을 품고있는 명소를 찾아내보자  
▶ To.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busan.co.kr)의 추천여행편을 살짝 참고해 보세요

**응모자격** : 제한없음(단, 팀 참가의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  
**작품규격** : 5분이내의 영상  
**출품수** : 1인(팀)당 한번  
**접수기간** : 2013.6.3(월) ~ 2013.8.12(월)  
**출품요령**  
- 참가신청서 www.kookje.co.kr에서 다운로드와 함께 데이터CD나 DVD 2장 제출  
- 광운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은 2013. 8. 12(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가래동 76-2)  
국제신문빌딩 7층 문화사업국 「부산관광 UCC전국공모전」  
담당자 임 Tel. 051)600-5226

10점 시상금 총 1,000만원

구분	상금	시상내역	비고
대경	3,000,000	1팀	부산광역시시장
대우수상	2,000,000	1팀	부산광역시시장
대학·일반부	1,000,000	1팀	국제신문사시장
우수상	500,000	3팀	부산시관광협회시장
최우수상	1,000,000	1팀	부산광역시시장
최소년부	600,000	1팀	국제신문사시장
입선	300,000	3팀	부산시관광협회시장

**예선** : 2013. 8. 13(화)~2013. 8. 15(목)  
**본선** : 2013. 8. 16(금)~2013. 8. 30(금)  
**심사발표** : 2013. 9. 2(월)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시상식** : 2013. 9. 7(토) (예정) 14:00, BEXCO 부산국제관광전 행사장

- 예선에 통과한 작품들은 Youtube.com/ucckookje에 등록이 되며, 본선 기간 동안 부산 관광홍보대사로서 자신이 만든 동영상상을 널리 홍보하여 접수 획득
- 조화수 접수 30%(조화수 순위에 따른 차등 배점)과 심사위원 점수 70%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 발표

## 엔저 반한反韓 감정으로 급감한 일본관광객 잡기 총력전

부산시는 엔저 여파로 일본인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 2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엔저 지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저 지속에 따른 일본 관광객 유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일본 전문 여행사에 대한 특별용자(대출금리 2.84%)를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 대책으로는 부산 방문 선호도가 높았던 일본 규슈지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크루즈 전세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후쿠오카, 나가사키현과 공동 선상 관광·의료 프로젝션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본 측과 협의에 나섰다.



## 서면 한식당 '마당집' 비즈니스호텔 건립

부산관광발전에 큰 도움될 것. 해운대 7곳, 송정지역 2곳 등도 생겨

부산 서면 한식당인 마당집에 대규모 비즈니스호텔이 생긴다. 부산진구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마당집이 부산진구 부전2동의 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받았고,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마당집에 들어서는 호텔은 관광호텔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많이 생기는 분양 목적의 레지던스호텔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 땅은 현재 마당집 주차장과 사랑채, 안가, 마당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당집은 대지면적이 1238㎡(375평) 객실은 261실 규모로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 진구청은 "해당부지는 상업지로 호텔 건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건축허가는 나가 있지만 착공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일본인 관광객의 숙소 문제로 고심하던 차였는데 호텔이 롯데호텔서면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텔이 완공되면 부산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광업계는 내다봤다.

이외에도 해운대 지역 7곳, 송정지역에 2곳 비즈니스호텔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송도요양병원 개원

의료법인장원 '송도요양병원'이 개원했다. 서구 안남공원로 522에 대지 5,592㎡ 건평 9,066㎡에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320실이며 자연 친화적으로 건립 '최상의 서비스로 사랑받는 송도요양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다'이며 또 '남서항으로 배치된 병원의 좌향은 푸른 숲 맑은 공기, 그리고 충분한 채광을 누릴 수 있게 친인간적인 설계로 건축된 자연과 함께하는 전문요양병원'이라고 노대철 사무국장은 말한다.



## 부산 오륙도 밤바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

야간 해상관광이 활성화되고 해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

부산시는 우리나라 해상 관문에 위치한 '오륙도'를 야간에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륙도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안 탐방로의 시별점인 이기대 갈매길과 광안대교 등 광안리 야경과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명소 개발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는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이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오륙도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아름다운 경관 조명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9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교수,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었다.

시는 자문내용을 토대로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륙도에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되면 아름다운 부산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야간 해상관광이 활성화되고 해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부산 서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 본격화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조성사업이 본격화돼 오는 2014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부산시는 서면 일대 동천로 옛 밀리오레-더샵 센트럴스타 740m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천로 일대 분수시설·각종 조형물 설치

지난 2009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4년 동안 국가시범사업 선정,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착공된 것이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에는 국비 22억원과 시비 59억원 등 총 81억원이 투입된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현재 왕복 4차로인 도로를 2차로로 줄이고 대신 보도를 넓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든다. 특히 여유공간에는 분수시설 등 각종 조형물 등이 설치돼 도심 속 명물 문화거리로 새롭게 탄생한다.

또 지상에 설치된 전선을 모두 지하화함으로써 도시경관도 크게 개선된다.

2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에는 승용차 진입이 제한되고 시내버스 노선 위주로 이용된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확충해 대중교통으로 부산 서면권 도심 접근이 보다 쉬워진다.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에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만 통행하도록 승용차 진입으로 인한 교통혼잡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유럽, 미주 등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세계 40여개 도시에서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에 대구 중앙로에 조성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이미 문명되고 있는 해외도시 사례와 대구사례, 동천로의 현재 어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서면 동천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면 △도심지대 대중교통 이용자 증대 △도심지대 승용차 이용 감소로 교통소동 원할 △보행자 증대(약 30% 증가 예상) △주변 상권 활성화(영업점수 증가, 매출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로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거듭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황홀한 부산의 여름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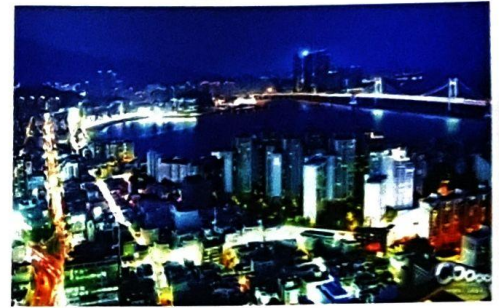
미국 뉴욕이나 홍콩의 밤이 무색할 정도로 부산의 여름 야경은 황홀하다.

1만원을 내고 부산시티투어버스 야경코스를 타면 부산의 밤 구경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시티투어 야경코스는 오후 7시 30분 부산역을 출발해 광안리 해운대 달맞이-광안대교를 거쳐 밤 10시 부산역으로 돌아온다.

또 바다 위를 떠다니는 크루즈도 부산 야경을 감상하기엔 제격이다. 해운대 마리나티 입구 티파니21 선착장은 여름밤이면 야경투어를 즐기려는 여행객으로 줄을 잇는다. 선상에서 부산야경뿐 아니라 광안대교 야경을 가까이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매력, 기대해도 좋다. 선상만찬도 즐기고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럭셔리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백사장을 품고 있는 거리 곳곳에서 노래, 춤, 색소폰, 재즈, 미술 공연이 펼쳐지는데, 해변 거리공연의 대표 명소는 광안리. 7월부터 광안리 해변도로는 매주 토요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변신, 이색 공연이 넘쳐난다.

사하구 대포포 해수욕장에서는 다양한 음악에 맞춰 각양각색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꿈의 낙조분수'를 감상할 수 있다. 무더위를 한밤에 날려줄 시원한 물줄기와 아름다운 분수소에 낭만과 추억을 쌓을 수 있으며 부산역 광장에서도 자락마다 멀티음악분수소가 연주된다.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도 특별한 야경을 만날 수 있다. 7-8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무료 '야외 영화 상영회'를 열어 별빛과 함께 명작의 감흥을 느낄 수 있고, 영화감상은 물론 거대한 생무지개가 밤하늘에 떠 있는 모습의 빅루프와 스물루프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 해운대 일대 '부산관광1번지'로 재도약

롯데호텔, 사계절 체류형 6성급 특급호텔 엘시티 2017년 준공

롯데호텔이 해운대 엘시티(해운대관광리조트)의 101층 랜드마크타워에 리조트 기능을 강화한 6성급 특급호텔을 추진하면서 해운대 일대가 '부산 관광의 1번지'로 재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호텔은 2017년 준공되는 엘시티 내 신축 호텔에 아쿠아월드 같은 물놀이 시설을 유치해 리조트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해운대 라인의 호텔들과는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엔지와 빈한 감정 등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롯데호텔부산도 객실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웨스틴조선과 파크하얏트 등 해운대 라인의 특급호텔들은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가족단위로 부산 관광에 나선 수도권 고객들과 미이스(MICE) 관련 외국인 투숙객들로 특수를 누리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롯데호텔은 신축 호텔에 아쿠아월드 같은 물놀이 시설을 넣어 리조트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해운대 호텔들은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관광 인프라를 끼고 있지만, 호텔 내부 리조트 기능은 약한 편이다.

롯데호텔은 리조트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서면에 집중된 일본인 관광객을 해운대로 분산 유치해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최근에는 부산을 거쳐 서울과 제주도로 빠져나가는 경유형 관광객들도 많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회의와 포상관광 등 미이스(MICE) 관련 투숙객도 타깃으로 겨냥하고 있다.

# 강동병원 부산시민공원에 124그루 나무 헌수(기부)

강동병원 개원 20주년 맞아 직원들과 뜻모아 동참하게 돼



부산의료관광의 선두주자 보건복지부 지정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강동병원(병원장 강신혁)이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숲 헌수(기부)운동에 참여했다.

부산의 몇몇 뜻있는 기업들이 이번 헌수(기부) 운동에 참여하였지만 의료기관 중에서는 처음이다. 강동병원에서는 낙상홍, 회양목, 쥐똥나무 등 총 124그루의 나무를 헌수(기부) 하였다. 특히 강동병원의 헌수(기부)는 병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회해 뜻을 모아 바자회 행사를 통한 수익금에 병원의 기부가 더해져 더 의미가 크다.

이번 헌수운동에 강동병원의 총괄 책임자인 강석균 부원장은 "올해는 강동병원 개원 20주년으로 직원들과 좀 더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하던 중 부산시와 (사) 부산그린트러스트(이사장 조용국)에서 주관하는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숲 헌수(기부) 운동을 접하게 되었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으며 이번에 헌수한 나무들이 잘 자라 부산 시민들에게 작은 휴식처가 되길 원하며 이번 기회에 강동병원이 20년동안 부산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게 되어 기쁘다" 고 전했다.

## 김해국제공항, 하반기 국제선 대폭 신·증편 예정

김해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올해 하반기 대폭 늘어난다. 지난 5월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중국 난징 노선이 지난 달 12일부터 주 8회 신설 되었으며 뒤이어 부산-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선이 15일부터 주 8회 신설됐다. 또 9월 5일 부산-중국 장가계 노선이 4회 증편되며 9월 중 부산-일본 오사카 노선도 주 14회 늘어날 예정이다. 하반기 신·증편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에서만 김

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신설편은 2개국 3개 도시 주 24편, 증편은 3개국 9개 도시 주 64편 늘어나게 된다. 김해국제공항의 현재 국제선 운항 노선은 10개국 29개 도시 주 708편에 달한다. 부산시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선 신·증편 노선을 홍보하는 한편 시와 시 산하 해외공무출장시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 일상에서 찌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동의보감촌을 가다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아 건강과 행복을 꿈꾸는 인류 최고의 힐링축제로 세계 최초로 열리는 건강 엑스포다. 동의보감은 임금(선조)의 명을 받은 어의 허준선생이 1597년에 착수하여 1613년에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우리 전통의학과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로 동양의학사의 최고봉으로 평가 받았으며,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가치를 인정하여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2009년 9월)했고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2011년 10월)하였다.

### ▲ 전시관 운영

- 세계관 - 세계전통의약과 문화 · 약선문화관 - 약선의 과거, 현재, 미래모습 전시 · 체험 · 교류협력관 - 국내외 한방기술, 제품
- 힐링체험 - 진단과 치유 · 한방기체침장 - 기와 맥의 심신 치료공간 · 해민서 운영 -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료 실시

### ▲ 행사 및 이벤트

- 인류를 위한 치유의 여행, 메디로드
- 산청힐링 맨발 콘서트
- 해외문화 공연
- 스페셜 이벤트
- 동의보감 400주년, 다양한 한의학 실생활 체험프로그램
- 지역예술문화 공연
- 쇼/7080 추억의 노래(통기타) 공연
- 세계약선요리경연대회

지원개요	숙박비 지원	크루즈 유치 지원	항공(전세기)	버스 임대비 지원	광고비 지원
<b>지원기간</b> 연중  <b>지원대상</b>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여행업체  <b>지원금액</b> 경남관광협회 사전 홍보 및 협의  <b>신청기간</b> 관광객 유치 완료 후 15일 이내 신청	1인당 1박 1만 원 2박 2만 원 3박 이상 2015천 원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경남도에서 1박 이상 유치한 경우	1회당 300만원  도내 항만 또는 공항에 정박하여 출항한 경우	1회당 300만원~400만원  150여 이상	1차당 100만원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을 도내 유입시키거나 100명 이상 숙박한 경우 (경남도내 버스 업체)	1회당 100만원  경남도내 1박 이상 숙박, 숙박업소 관광 상품 개발하여 신문, 잡지 등 광고한 경우



## 산청엑스포 8월14일까지 UCC 공모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가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스마트폰 UCC(User Created Content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청엑스포조직위는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45일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스마트폰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본격 공모에 앞서 현재 일광관광센터, 태리촌, 잠꼬리아 캠퍼스촌, 인크루트공모전, 영유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한(나르기) 홍보를 진행 중이다. 자유주제는 산청엑스포를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신청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1,2차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수상자를 확정 발표하고 9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엑스포참관객 및 전국적인 엑스포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손해식 편집위원

## 입국장 면세점, 찬성 VS 반대 선택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일본공항 등 관광대국 국가들 입국장 면세점 운영

우리나라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논의는 지난 2003년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품 판매를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찬/반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먼저 찬성측의 입장은 공항 경쟁력과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출국시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들을 해외여행 기간 동안 휴대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주공항의 내국인 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들고 있다. 찬성측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 측면에서 경쟁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호주시드니 공항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의 허브공항들에 현재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 돼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측의 입장은 소수의 편의보다는 다

수의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은 조세형평성의 저해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의 수익은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및 항공사의 기념품 판매량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와 탑승서비스 품질 저하의 대가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가 예측한 입국자의 40% 정도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하면 혼잡을 발생시켜 대다수 일반여행자들의 신속한 통관 흐름을 저해하며 면세한도 초과 여부확인 등을 위한 검사로 20분 이상 지연되어 국제 허브공항 기준치인 45분을 초과해 공항의 혼잡도가 증가됨으로써 공항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관광대국으로 입지를 굳힌 국가들은 대부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입국장 면세점 운영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수익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첵랍콕공항의 경우 관련법 개정 후 1999년 9월 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밀레시아 쿠알라룸푸르 세팡공항, UAE의 두바이공항, 브라질의 상파울루 공항, 일본 공항 등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 관광 종사원 대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부산시 관광협회(회장-이태섭)는 지난 18일 관광종사원을 대상으로 2013 관광종사원 대고객친절 서비스 교육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여행서비스 시장에 발맞춰 가기 위한 관광 종사원 대고객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서비스 교육은 다년간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IN교육전략연구원 공학박사 전미란 대표를 초빙하여 매너와 에티켓, 행복을 부르는 이미지메이킹, 이미지리더십(셀프리더십),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표정관리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고객을 대하는데 있어 유익한 교육이었다.

## 친구 후 빌려타고 휴가가려면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부터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하지만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증가하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사고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2만 232건 중 여름 장마철에 40%(2만 4430건)가 발생했다.

여름 휴가철일수록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원칙들을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자.

### ○휴가철엔 다양한 보험특약 챙겨야

금융원은 휴가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엔 가족운전한정특약 등에 들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지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특별약관 가입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는 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고 때 보험사 청구는 최대한 빠르게

금융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최대한 빨리 사고접수를 하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문서양식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나 각 손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보증을 든 회사에 먼저 청구하는 게 좋다.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에서 생길 수 있

는 과실비율의 다름으로 인해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르면 자동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엔 각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게 돼 있다. 대인·대물은 과실이 많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다.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엔 피해자물을 최초로 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게 정해져 있다.

###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비가 내릴 때는 안전운전이 필수다. 특히 장마철엔 차량 침수도 대비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 장소는 계곡이나 강가 둔치, 낮은 지대를 피하고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도 지하보다 지상을 이용하는 게 좋다.

침수 사고 시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을 경우 질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됐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 해도 차량의 문이나 섀시트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차 중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잠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강변,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하게 들어가서 차를 빼낼 필요는 없다. 침수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신중한 차량 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는 삼가야 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2만~7만원) 및 벌점(1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DMB를 보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 점도 알아야 한다. 보험업법은 별도 운전자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에 따른 법률 비용 등을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해외여행 성수기...사건 · 사고 유형과 대처방안

출발에 앞서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등을 통해 여행지역의 안전상태 및 질병 상황 등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

여름철 해외 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에서 강도나 소매치기, 풍토병, 안전사고, 성범죄 등 각종 손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은 물론, 유럽과 미주 등 비교적 안전한 여행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도 강·절도 피해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객들은 출발에 앞서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등을 통해 여행지역의 안전상태 및 질병 상황 등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해외 각국의 우리나라 공관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여행지에서의 행동 요령 등을 고지하면서 여행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해외여행에서 자주 겪게 되는 사건

중동·필리핀 등에선 강도 조심해야 =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일부 국가 등 치안상태가 열악한 곳을 여행하는 국민은 무엇보다 강도 범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집트의 치안상태가 나빠지면서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야간 외출 시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필리핀도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수면제가 든 음료수나 술을 건네고 나서 금품을 빼앗는 강도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건네는 술이나 음료는 절대로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유병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날치기 주의해야 = 중국, 동남아는 물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여행하는 국민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가 바로 소매치기나 날치기다.

연간 8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는 소매치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특히 파리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청소년 소매치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아시아인

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메로 몰러다니며 관광객이 봄비는 '모나리자' 전시관이나 '다비드상' 주변에서 소매치기를 일삼다 이를 적발하는 경비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자 경비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일손을 놓아버린 경우도 있었다.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자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최근 프랑스에서의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을 소개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광 명소인 런던도 소매치기 범죄의 예외지역이 아니다. 런던의 관광명소 주변에는 '기념사진을 찍어 주겠다'거나 '어깨동무를 하자'고 접근해 관광객의 귀족품을 날치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서유럽 교통 요충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등에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소매치기와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브뤼셀 시내 3개의 환승 기차역 및 관광 명소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주로 아시아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소매치기 수범도 날이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다. 여성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풀어 환심을 산 뒤 자기 나라 화폐를 서로 보여주자며 지갑 속 돈을 슬쩍 꺼내 가는 경우도 있다.

헝가리에서는 경찰관 복장을 한 사기꾼들이 관광객의 지갑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많아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스마트폰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는 최근 40대 탈북자가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 위에 넘어져 뇌진탕으로 한 때 의식을 잃기도 했다.

◇ 교통사고·선박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 외국을 여행할 때는 교통사고와 선박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간 100만 명의 한국인이 찾는 태국에서는 유람선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파타야에서 한국인 수십 명이 탄 쾌속정이 다른 배와 충돌해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터키에선 열기구 관광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명 관광지인 카파도키아에



서 열기구 1대가 추락해 관광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밖에 영국이나 일본, 홍콩 등 우리나라와 차선의 방향이 반대인 지역에서도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인도·중남미 등에선 성범죄 조심해야 = 인도, 멕시코 등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여성이 현지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곳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홀로 배낭여행을 온 우리나라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앞서 지난 3월에는 멕시코의 휴양지 칸쿤에서 20대 한국인 여학생이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브라질에서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성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중동·그리스 등 방문할 때는 시위현장에 가지 않는 게 상책 = '아랍의 봄'을 경험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나 최근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그리스나 터키를 여행할 때는 가능한 시위현장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도쿄(東京) 신오쿠보(新大久保)역 주변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자주 벌어지는 우의 단체의 반한 시위나 이에 반대하는 맞불시위의 현장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풍토병이나 자연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등의 오지를 여행하는 국민은 풍토병과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 장기간 여행을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등에서 여행국의 질병 정보를 파악한 다음 예방접종을 받거나 비상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미주 지역을 여행할 때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를 통해 관련 예보를 숙지하고 여행일정을 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워싱턴DC 총영사관은 전했다.

이밖에 중국 티베트·신장자치구, 인도네시아 아체·말루쿠·중부 술라웨시·파푸아주, 태국 수린·시사켓주, 필리핀 등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을 여행할 때는 신변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 미국에서는 총기사고에 경각심 가져야 = 미국은 치안이 안정적이지만 개인의 총기 소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종종 총기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우범지역은 총기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 좋다.

◇ 이슬람 국가 여행할 때는 '반 이슬람 행위' 하면 안돼 =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공항장소에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의 기도를 하거나 선교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음주행위도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에서는 음주행위가 이슬람 과격단체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호텔, 식당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술을 마시거나 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 '박가지요' 등 주의해야 = 유명 관광지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박가지 상술에도 주의해야 한다.

터키의 이스탄불 탑심 등 구시가 관광지에서는 최근 한국 관광객이 호객꾼을 따라다니다가 술값 박가지를 쓴 사례가 있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노천카페가 아닌 여성 걸객원이 있는 술집으로 가면 박가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선박관광을 강요하고 '박가지요'를 요구하는 사례에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 마카오에서는 무허가 민박 집사를 이용할지 말아야 한다. 무허가 민박을 이용하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약 4만~5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오 btjbusan@hanmail.net

# 부산 외국인관광객 방문 증가세

전년동기 10.2% 증가, 전월동기 11.5% 증가

2013년 4월 부산 외국인관광객은 249,210명으로 전년동월(226,112명)

대비 10.2% 증가전국대비 구성비 25.6%),

전월(223,563명)대비 11.5% 증가

4월 누계 818,901명 방문으로 전년동기(803,229명) 대비 2.0% 증가

전국은 972,164명 방문하여 전년동월(967,583명) 대비 0.5% 증가

4월 누계 3,552천명 방문하여 전년동기(3,449천명) 대비 3.0% 증가

구분		'12년 4월	'13년 4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월평균방문
부산	월계	226,112	249,210	10.2	204,725
	누계	803,229	818,901	2.0	
전국	월계	967,593	972,164	0.5	887,916
	누계	3,448,710	3,551,665	3.0	

13년 4월 현재 외국인관광객 현황

구분	한국전체	부산입국경로			외국선원	합계	전년동기	증감비	구성비	
		공항	항구	타지경유						
총계	월계	972,164	66,228	65,562	77,140	40,280	249,210	226,112	10.2	100.0
	누계	3,551,665	236,044	166,757	284,170	131,930	818,901	803,229	2.0	100.0
일본	월계	202,529	27,172	15,032	993	2,851	46,048	50,507	-8.8	18.5
	누계	915,056	102,272	43,899	10,236	10,806	167,213	205,627	-18.7	20.4
중국	월계	335,069	10,642	16,873	33,478	1,159	62,152	44,439	39.9	24.9
	누계	1,057,617	39,650	26,502	116,672	4,423	187,247	153,265	22.2	22.9
홍콩	월계	30,404	4,043	151	1,173	1,882	7,249	7,433	-2.5	2.9
	누계	126,254	9,523	423	5,271	7,752	22,969	20,863	10.1	2.8
대만	월계	35,107	3,505	174	645	66	4,390	4,847	-9.4	1.8
	누계	167,817	11,450	876	4,213	352	16,891	20,059	-15.8	2.1
태국	월계	41,131	1,623	196	1,444	40	3,303	4,101	-19.5	1.3
	누계	152,329	4,811	439	6,428	100	11,778	12,740	-7.6	1.4
싱가포르	월계	13,149	270	80	1,130	1,325	2,805	2,263	24.0	1.1
	누계	40,447	918	138	3,418	4,660	9,134	7,561	20.8	1.1
미국	월계	65,260	2,887	4,904	8,835	466	17,092	14,496	17.9	6.9
	누계	222,649	10,277	8,877	30,443	1,649	51,246	46,541	10.1	6.3
캐나다	월계	11,910	444	1,197	2,378	-	4,019	4,215	-4.7	1.6
	누계	42,371	1,737	2,257	8,871	-	12,865	13,217	-2.7	1.6
영국	월계	10,935	805	1,910	1,335	991	5,041	4,490	12.3	2.0
	누계	39,953	2,791	3,790	5,777	3,685	16,043	15,221	5.4	2.0
프랑스	월계	6,957	454	100	1,038	131	1,723	1,738	-0.9	0.7
	누계	22,366	1,385	270	3,494	365	5,514	5,622	-1.9	0.7
독일	월계	8,631	845	444	955	997	3,241	3,682	-12.0	1.3
	누계	32,021	2,779	1,438	3,809	4,246	12,272	14,609	-16.0	1.5
러시아	월계	16,062	1,276	2,156	2,369	1,739	7,540	6,167	22.3	3.0
	누계	57,660	3,851	6,492	8,712	5,606	24,661	18,914	30.4	3.0
호주	월계	10,458	517	1,402	1,212	-	3,131	2,924	7.1	1.3
	누계	41,963	1,696	7,905	4,588	-	14,189	11,277	25.8	1.7
기타	월계	157,960	8,447	20,327	16,979	28,633	74,386	66,758	11.4	29.8
	누계	534,965	31,622	61,264	59,811	88,286	240,983	229,598	5.0	29.4
교포	월계	26,602	3,298	616	3,176	-	7,090	8,052	-11.9	2.8
	누계	98,197	11,282	2,187	12,427	-	25,896	28,115	-7.9	3.2

# 새정부에 바라는 부산의 관광정책

“ 부산관광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역사와 인간이 만들어낸 부산이야기만  
으로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상품만으로 관광객을 붙잡아 두기에는 역부족이다. ”



장 순복  
관광협회 부회장  
(대륙항공여행사 대표)

비즈니스 이벤트와 관련된 이른바 MICE산업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산  
북도로 르네상스 등 제생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부산관광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 관광객을 부산으로 오게 하겠다는 강  
기적인 부산관광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역사와 인간이 만들어  
낸 부산이야기만으로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상품만으로 관광객을 붙잡  
아 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늘의 부산을 만든 빼어난 역사 임진왜란, 한  
국전쟁, 그리고 한국 관문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개항 역사는 다  
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그 가운데 전세계인의 주목을 끌 수 있  
는 곳은 UN기념공원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 3만 6402명을 포함해 4만  
896명이 고귀한 생명을 한국에 바쳤다. 부산 UN기념공원은 11개국

2300명의 전사자가 잠들어있다. 매년  
4월이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들의 용맹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  
고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UN기념공원을 찾고 있다. 또한 제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  
일인 11월 11일 오전 11시 영인방 55개국을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6.25전쟁 당시 중군기자로 참전했던 캐나다 빈센트 커티니  
씨가 2007년 추모행사를 제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이 행사는 부산이 세계평화도시의 중심임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위트컴정군은 UN기념공원에 안장  
된 유일한 장군이다. 부산을 위해 수많은 일을 했던 그는 한국어인과 결  
혼했고 그 러브스토리를 UN기념공원의 테마로 만들 수 있다. 국내관광  
객을 비롯해 해외관광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콘텐츠는 UN참전국가 북장  
의장대시범 또는 국가별 전통 음악공연이다. 부산박물관을 북한박물관  
쪽으로 옮겨 철의 왕국 가야와 독로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전시공간을  
만들고 현재 부산박물관은 6.25 참전국 및 지원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UN참전기념탑에서 부산문화회관을 연  
결되는 도로를 지하로 연결하여 UN기념공원과 부산문화회관을 하나의  
그린필드로 조성하면 세계적인 관광지 하나가 탄생된다. 매일 오후 2시

UN참전국 북장으로 열병, 교대식 또는 의장대시범, 각종 북장 전통공연  
을 상상해보라.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UN참전기념탑에  
서 부산문화회관으로 연결되는 도로 지하화와 그린필드 조성 그리고 부  
산박물관 이전문제는 언젠가 실현해야할 부산관광업계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역사성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장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의  
미래관광을 위한 해운대에서 송정까지의 레일바이크, 등부산관광단지,  
이기대 갈매길 야간 걷기 및 야시장 조성, 건립비 3천억이 투입될 '부산  
오페라하우스',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건설될 케이볼카, 자갈치  
건너편 조선공업단지 이전 후 만들어야 할 문화관광 테마광장, 북한대교  
가 완성되면 만들어질 부산 브릿지  
투어 등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도중에  
UN기념공원 매일공연을 두어야 한

다. 부산시 및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음악, 공연예술, 무용, 연극,  
전통마당극, 국악관현악, 문학 등 예술단체는 무조건 1일공연에 참가시  
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술문화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1일 공연을 발표회 형식으로 승화시킨다면 그  
과급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부산은행이 예술단체들의 지원으로 5.31만  
원을 지역 무형문화재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부산시체육진흥협회, 부  
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동해안민속보존회, 송명산민속보존회, 다대포  
후리소리보존회, 강대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부산열산보존회 등이 전  
승지원금으로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승되는 것을 이룩하고 있  
다. 후원기업을 찾아내 이 제도를 부산시민공원에 이끔여야 한다. 부  
산 무형문화재단체와 부산 예술인이 하나되려면 많은 국민들은 부산  
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  
이다. 천절과 배려라는 마인드조차도 문화적 개성과 자긍심으로 승화된 장터  
가 없다면 공염불이 된다. 역사성이 그 도시의 개성이 될 때 관광객은 그  
곳을 가보고 싶어 한다.



## 의료관광은 부산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강 신 혁  
강동병원장, 의학박사

“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우리의 의료관광시장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환자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앞장선 의료 관광 마케팅 활동은 매우 유익하고도 보람된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이후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5만7000여명(잠정)으로 전년(12만2297명) 대비 28.4% 늘어났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의료 기술을 개발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 해외 환자 유치 선도 의료 기술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대구·부산 등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체 예산과 민간 재원을 국비 지원액 이상으로 더해 지역에 맞는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데 쓴다.

부산시는 부산을 의료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한 홍보가 본격 시작됐다.

시는 부산 의료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해 동영상 전문채널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다.

5분 남짓의 홍보영상은 부산의 관광자원과 의료 서비스를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해운대·관린리 해수욕장과 세계꽃축제, 부산 국제영화제 등 부산의 주요 국제행사를 보여준다. 이어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내 부산의료관광 안내센터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주요 대학병원의 첨단 장비와 의료진 등을 소개한다.

특히 5개 국어 내레이션은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도움을 받아 녹음됐다.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제작비를 크게 줄여 200

여만 원에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영상은 유튜브에 '메디컬 부산' 채널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케이팝(K-POP)의 열풍에 힘입어 한류스타 팬미팅을 활용한 홍보도 시작한다.

한류스타의 팬미팅 행사가 올해 부산에서 9회 정도 열리는데,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늘어나는 점을 겨냥해 팬미팅 행사장에서 부산의료관광을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영화배우 이준기의 팬미팅 행사에 1박2일 일정으로 참가하는 일본 관광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내 의료기관 10여 곳이 팬미팅 참가를 겸해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상담과 간단한 진료·시술을 해주는 '의료관광상담센터'도 열었다.

부산 의료관광 사업은 추진 첫해인 2009년 4천여 명을 시작으로, 2010년 5천여 명, 2011년 1만여 명에 이어 지난해 1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부산 의료관광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해 해외 환자 유치를 늘리고 지역 숙박·음식·관광 산업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산업은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부산에 불일이 있어 방문한 외국인 사업가나 관광객들이 비즈니스는 부산에서 하고 진료는 타 지역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산의 의료시설이 낙후돼서라기보다 부산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흥

“ 러시아·중국·일본 등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쪽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보 부족 때문이다. 오는 손님도 놓치는 꼴이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질환별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서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외국인자 유치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은 항공 직항편이 부족해 진료와 여행 일정이 틀어질까 봐 부산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중국·일본 등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행태에서 벗어나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쪽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의료행위별 표준가격표를 만드는 등 부산 의료관광을 체계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통역 실력과 의료 지식을 동시에 갖춘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도 시급하다. 부산시는 병원들과 해외환자 유치업체들을 유기적으로 묶어 의료관광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인천에서는 인천의료관광재단을 만들어 활발히 활동중이다.

러시아·중국·일본 등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행태에서 벗어나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쪽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해외 에이전시를 적극 발굴하여 해외 거점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 환자들이 지국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직항 항공노선 증설이나 신공항 건설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강동병원을 운영해 온지도 어느새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15명의 의사와 200병상을 가지고 정형외과를 비롯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과목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우리의 의료관광시장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환자들을 국내에 유치

하는데 앞장선 의료 관광 마케팅 활동은 매우 유익하고도 보람된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아직까지도 의료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인공관절 환자들의 한국내에서의 수술과 진료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난 4월 23일부터 1주일간 위 두개 국가를 방문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의료 수준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개발회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우리의 의료관광부스를 설치하여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의료 수준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시·관람케하여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 제기 되는 몇가지는 개선된다면 한국의 의료관광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에 진입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의료관광사업의 주체인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신뢰회복을 통한 협력이다. 의료기관은 유치업체를 의료관광사업의 꼭 필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유치업체는 의료기관을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의료관광의 여러 유관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은 여러 협회가 난립하고 있어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대학병원에 치중된 것을 지역의료기관에도 지원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욱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나씩 꾸준히 바꿔나가면 의료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재들의 열정과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은 분명도약할 것임을 확신한다.

# 문관부 업무계획으로 살펴본 2013관광정책

문관부의 업무계획은 크게 ▲용·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 ▲수용태세 정비를 통한 저가에서 고품격 관광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행복과 여유를 찾아주는 국내관광 활성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용·복합 관광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

용·복합 관광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MICE,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한류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레저·스포츠관광 각 부문별 육성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MICE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500명 이상의 대규모 MICE 행사 유치에 지원할 예정인데 MICE 분야는 MICE 참가자의 1인당 지출액이 2000년 기준 2,585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생산유발효과는 9조2,700억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헬스케어와 숙박,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를 대구·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와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의약과 미용, 성형, 헬스케어 등 의 료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한 예로, 의료관광객 수는 2008년 2만 7,000명에서 2012년 15만명으로 고속 성장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주요 항만에 '크루즈관광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안내·통역 등 기항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며 '왕덕궁 달빛기행'과 같은 고 궁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템플스테이 경쟁력 제고, 150여 개 소에 이르는 고택·종택 등 전통 한옥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도 꾀한다. 외국인 자전거 동호회 유치와 녹색 자전거열차 운영등을 통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스 키 코리아' 브랜드화를 통한 동계스포츠 관광자원화를 통해 레 저·스포츠관광 부문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관광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지원에도 나 선다. 추천관광지, 전통문화·자연·레포츠 등 테마별 정보, 숙박·교통·음식 등의 종합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모바일 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스마트 투어가이드'도 지속 보급한다. 스마트 투

어가이드에는 2010-2011년 유네스코문화유산, 2012년 청계천 등의 정보를 수록했으며 올해는 북촌 일대 정보도 서비스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급증 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웹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Visit Korea' 사이트도 세계 20여 개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 이다.

## 중국인 수용태세 정비에도 '힘쓴다'

관광 수용태세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 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리나라 인바운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의 장기적 발전 도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인 단 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국 인바운드 부분의 저가관광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2년 주기의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시행, 마이너스투어와 쇼핑 강요 등 질 서문란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시 행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저가관광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목돼 온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까지 3만2,000실의 관광호텔을 마련하는 한편 게스트하우스와 한옥 등의 대체숙박 시설 조기 확충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3년 단위의 호텔등급평가 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 하는 등 숙박시설 등급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수용태세 개선의 일환으로 '관광경찰'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관광지치안유지와 관광객 사고조치, 분쟁 중재 등의 역할을 수 행하는 태국의 관광경찰과 같은 개념으로 관광경찰을 통해 불법 콜밴, 바가지요금, 무자격가이드 등 외래객의 불편요소를 근절 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다국어 관광안내표지를 1,000개 확충하고, 무자격 관광동역안내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프리미엄 가이드 를 양성하는 등 관광수용태세 선진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대체휴일제 및 방학분산제 공론화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대체휴일제 및 방학분산제 도입 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관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 및 공 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관광 육성을 위해서 지 역주민과 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자체 등이 참여해 복합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관광협의회'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마을·문화유 산과 연계한 스토리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콘텐츠와 접목한 노 후 관광시설 재생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해 홍보마케팅을 비롯해 숙박, 안내체계 등에 걸쳐 집중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위 해 올해 선정 및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가족여행 활 성화를 통해 국내여행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학습관광과 초등 학생 토요일체험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공공부문 복리 후생제도를 관광사업체 등과 연계하고 할인혜택을 부여해 국내 관광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는 운영기관에 가입한 기업과 단체, 소속 직원이 여행비용을 월별로 5대5 매칭 으로 적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하는 제도인데 문관부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범실 시하고 2014년부터는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 여행업법 제정해 안전여행 추구

아웃바운드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여행에 초점을 맞 혔다. 우수여행상품을 인증하고, '여행상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건전여행 및 현지법 준수 의무를 부 과한 여행업법 제정에도 나선 상태. '여행업법'은 김태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과정을 밟고 있다. 여행업법 제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여행업계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가 상의 문제일 뿐 이번 국회 회기 중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안전, 현지법 준수를 통한 국 가 이미지 실추 방지 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여행업계는 항공 권 판매수수료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행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한 '여행수수료(TASF)' 부과 근거를 담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 5년간 관광에서 6만명 고용창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분야에서 향후 5년동안 6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MICE·의료관광·생태관광·실버관광·한류관광 등 용·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창조관광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관광두레)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 관광호텔의 경우 3만실을 확충할 경우 객실당 평균 0.7명의 신규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숙박시설(한옥, 민박 등) 과 휴양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2만명의 고용창출을 노리고 있다. 이에 더해 창조관광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역관광 개 발에 대한 투자유도를 통해 2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효율성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도 추진한다. 관광정책은 거의 모든 부처와 연계돼 있어 부처간 칸 막이 없는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MICE 및 산업관광 은 산업부와 연계돼 있고 의료관광은 복지부와, 전통문화관광은 문화재청과, 농촌·생태관광은 농식품부 및 환경부와, 비자제도는 법무부와, 관광숙박시설은 국토부와, 관광경찰 도입은 안전 행정부 업무와 연계돼 있다.

관련 부처간 협업을 위해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관광 한국 비전'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월부담 11월까지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4-2018)'을 수립할 방침이다.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숙박 등 수용태세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비자제도 개선), 국토부(관광숙박시설 확충), 안전행정부(관광경찰 제도도입)와 협력하고 산업부(한옥, 민박) 및 산업관광 부문에서, 복지부(의료관광 부문 개선), 농식품부 및 환경부 (농촌·생태관광 부문)에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호텔가소식

# hotel & information



**THE WESTIN CHOSUN** 로비에 위치한 파노라마 라운지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운대를 테마로 '썸머 트로피컬 칵테일 3종'을 선보이고 있다. 해운대 썸라이즈, 블루오션, 물문이 그 주인공이다. 해운대 썸라이즈는 업슬루트 보드카 베이스에 생망고와 오렌지로 해운대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그려냈다. 블루오션은 해운대 푸른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컬러에 만 다린 보드카를 곁들여 상큼함을 더했다. 물문은 생망고, 오렌지에 비트 즙을 더한 무알콜 칵테일로 여름 밤의 달을 표현했다. 가격은 1만8천~1만8천500원, 부가세 포함.



자녀들을 동반한 '썸머바운스 락(summer Bounce '락') 패키지 고객들을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오션스파 씨메르 안에 위치한 '키즈 플레이스'는 인기 만화 캐릭터 라바를 주제로 꾸며졌다. 또 호텔 소속 엔터테인먼트 전문 팀인 레오(L.E.O)와 함께 '라바를 잡아라', '미니 키즈 율림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월·수·금·일요일 오후 4~5시, 독일 원목 가구 브랜드인 '하바'는 하바 플레이존을 다시 오픈한다. 하바 플레이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동안 오픈되며 패키지 고객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본관 16층 파노라마 룸에서는 특수 촬영으로 라바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체험 수업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어린이 1명 당 5천 원.



**HAERUNDAE GRAND HOTEL**

웹사이트를 리뉴얼해 1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www.haeundaegrandhotel.com](http://www.haeundaegrandhotel.com))를 개설했다. 새 홈페이지는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공간을 제공한다. 기존 PC는 물론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대응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함께 세계 각국 어디에서 접속하더라도 어려가 없는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한다.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모두 5개 국어로 사이트를 구축해 외국인의 편의도 배려했다.



**NOVOTEL BUSAN**

다양한 여름 패키지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 썸머 패키지' 고객에게는 씨스케이프스에서 제공하는 2인 조식권과 테라스 카페의 아이스 커피 2잔, 롤 케익 1줄, 모듬쿠키를 제공한다. 또 DHC 생물 키트와 뷰티 매거진 인 스타일 썸머북, 호텔 가든 내 태닝존 무료 이용권, 클럽 에스프리 피트니스 센터 및 수영장 무료 이용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판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격은 22만 원부터. 봉사료 및 세금 별도. 4인용 맞춤 패키지로 판매했던 '4 in 1 스위트 패키지'도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판매한다. 바다 전망 패밀리 스위트 룸이 제공되고 4인 조식 무료, 휘트니스 및 온천 사우나 4인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가격은 주중 기준으로 오는 18일까지 29만 원이며 19일 이후부터는 45만 원, 봉사료 및 세금 별도.



**LOTTE HOTEL BUSAN**

뷔페레스토랑 라세노와 이탈리안 레스토랑 와인앤다이너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생일을 맞이한 20대 고객을 위해 '해피버스데이(HAPPY BIRTHDAY)2013' 파티를 준비한다. 이 기간동안 생일을 맞은 20대 고객을 포함, 4인 이상이 생일 파티를 진행할 경우 1인에게 무료혜택을 준다. 또 생일케익, 롯데시네마 이용권 1매, 기념 사진 및 액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추후 호텔 이용 시 전 레스토랑에서 2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HOTEL PHOENIX**



대면회장



스위트룸



웨딩홀



웨스턴스타일식당



**피닉스호텔 BUSAN**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8-1번지  
Tel. 051)245-8061~9 Fax. 051)241-1523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청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상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이, 상하이, 선양, 쑤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키티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기호송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이 세상보다 더 큰 은산의 꿈



대표이사 양재생



글로벌 종합물류 프론티어, 은산해운항공㈜



강동적인 물류우송

海運航空株式會社  
銀山  
海運航空株式會社  
銀山  
海運航空株式會社  
銀山

- 서울시 중구 소공동 21번지 한일빌딩 8층 Tel. 021772-8886 Fax. 021773-8888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71 87-5번지 해운빌딩 8층 Tel. 051441-8886 Fax. 051441-8888
- 양양시 양양읍 양양동 87D-3번지 Tel. 0336283-8888 Fax. 0336287-888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도동 1707-2번지 Tel. 031557-8886 Fax. 031557-888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도동 509번지 Tel. 031462-8886 Fax. 031462-888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도동 425-11번지 Tel. 0315273-8886 Fax. 0315273-8888
- 중국 (천진) 53-L World Road, Heng District, Tianjin P.R. China Tel. +86-22-2821-8888 Fax. +86-22-2821-1888



해운대 출발  
(09:30)

기장 해동용궁사

광안대교  
(경유)

UN기념공원

태종대

광복동 PIFF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산역

해운대 도착  
(18:00)



## 시티투어 상품 안내

### 부산시티투어 당일투어 출발시간 9:30 ~ 18:30

1인 요금 22,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해운대 출발(9:30) ▶ 해운대 달맞이(경유) ▶ 기장 해동용궁사 ▶ 광안대교(경유) ▶ UN기념공원 ▶ 태종대(자유중식) ▶ 광복동 PIFF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 부산역 경유(17:30) ▶ 해운대 도착(18:30)

### 태종대 코스 출발시간 11:00 ~ 18:30

1인 요금 19,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해운대 출발(11:00) ▶ 광안대교(경유) ▶ UN기념공원 ▶ 태종대(자유중식) ▶ 광복동 PIFF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 부산역 경유(17:30) ▶ 해운대 도착(18:30)

### 용궁사 코스 출발시간 11:00 ~ 18:30

1인 요금 19,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부산역 출발(11:00) ▶ 해운대 출발(11:30) ▶ 동백섬 누리마루 ▶ 해운대 관광 (자유중식, 아쿠아리움 or 오륙도 유람선) ▶ 기장 해동용궁사 ▶ 광복동 PIFF 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 부산역 경유 (18:00) ▶ 해운대 도착(18:30)

### 부산 야경 시티투어 출발시간 19:00 ~ 21:30 (최소출발인원 6명)

1인 요금 19,000원 (하절기, 동절기 출발시간 변경/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해운대 출발(19:00) ▶ 광안대교(경유) ▶ 이기대(부산형 야경관람) ▶ 황령산봉수대 ▶ 광안리 카페거리 ▶ 해운대 도착(21:30)

### 거가대교 완전정복 출발시간 11:00 ~ 18:00

1인 요금 30,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부산역 출발(11:00) ▶ 태종대 ▶ 자유중식 ▶ 거가대교 경유 ▶ 거가대교 전망대 및 휴게소 ▶ 남포동, 자갈치시장 ▶ 부산역 도착(18:00)

### 단독맞춤투어

- 45인승 / 28인승 / 25인승 버스
- 12인승 / 15인승 봉고 승합차
- 각종 기업체, 현장학습, 수학여행, 기타 단체활동 전세버스 상담문의

## KTX와 함께하는 서울 밤도깨비 여행

대한민국 쇼핑의 메카,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밤도깨비 야간 쇼핑여행!!

## 요금 68,000원 부터~

일정: 부산역 → 서울역 → 동대문(남대문)으로 이동 →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쇼핑 → 서울역으로 이동 → 부산역

※ 제공내역: 왕복열차비,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짐장바비(10,000원), 기타 개인비용 등 ※ 상행, 하행 열차시간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용 열차에 따라 여행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